

[바둑]

대국료 한푼 안주고... 경기 멋대로 미루고... 항의에도 묵묵부답

바둑계 '반칙왕' 중국

'중국 주최 세계대회에 한국기사가 출전을 거부해야 한다.'(인터넷 ID '대천사')

바둑 포털사이트(baduk.donga.com)에서 중국 기원측의 무상을 비난하는 바둑팬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바둑광론가 진재호씨가 'baduk.donga.com'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중국 기원은 대리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원년성 대리시에서 열린 제1회 대리배 세계 여자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기원은 대회에 출전한 박지은, 루이 나이웨이 등 5명의 여자기사들에게 대국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특히 박지은과 김혜민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전이 현재까지 치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대국 일정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영신, 윤영민 등 여자기사들이 최근 한국기원을 방문해 '대리배출전 선수들의 대국료를 받게해달라'고 간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05년 2월에 진행된 '일월성배'는 무려 2년째 대회가 진행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둑계에서는 일월성배에 출전한 선수들의 대국료를 거의 떼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중·일 3국 공동 주최 기전인 TV아시아 바둑선수권대회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한승 9단은 2005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1년 동안 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최근 중국기원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1개월 안에 대리배 대회를 속개하는 것은 물론 대국료 문제를 해결하지



중국기원측이 제1회 대리배 세계 여자바둑대회에서 선수들에게 대국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중 바둑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진은 대리배에 출전한 선수들.

대리배 1회전 탈락 기사에 귀국 여비도 안 줬다
화난 바둑팬들 "중 주최 기전 참가하지 말라"

양을 경우 한국이 주최기전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들의 대국료를 상계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즉, 한국경기에 출전한 중국 선수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국료를 중국측이 주최한 대회에 출전한 돈을 받지 못한 한국 선수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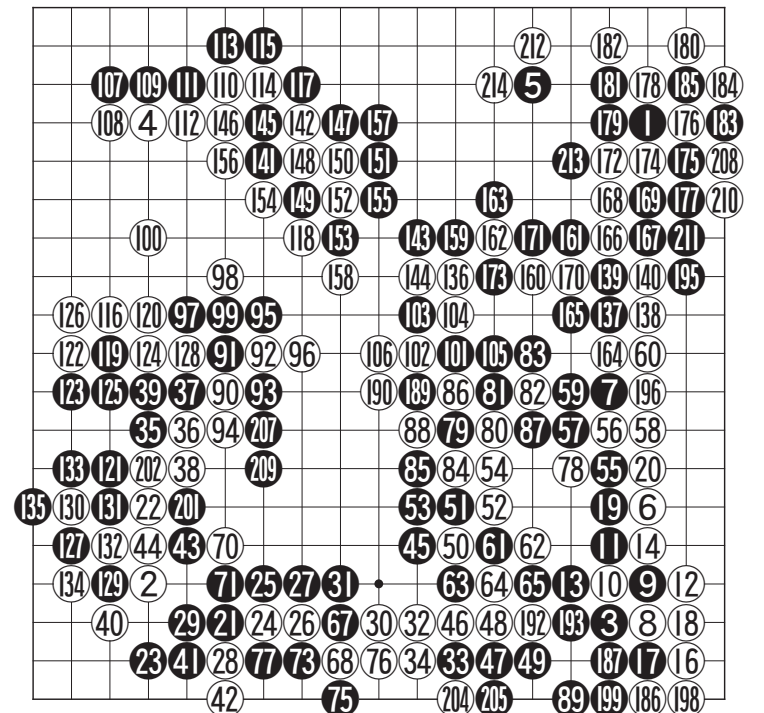
이와관련, 한국기원의 '친(親) 중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바둑팬사가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교류전이 중국에 편중되다 보니 일본 바둑계와의 교류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민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6회 광일배 조선대, 귀중한 승점 추가

직장대항 1회전
白 최한용 5단 (조선대)
黑 백동원 5단 (광주시청 A)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을 겸한 스위스리그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리그전이라고는 하지만 토너먼트와도 유사해서 첫판을 지게 되면 바로 입상권에서 멀어지므로 대단히 치명적이다.

이 판도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광주시청과 조선대학교가 격돌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결국 기세에 앞선 조선대의 최한용 5단이 귀중한 승점을 올려 우승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백동원 5단은 초반 하반의 승부처에서 승리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53으로 있는 등 느슨하게 둔 것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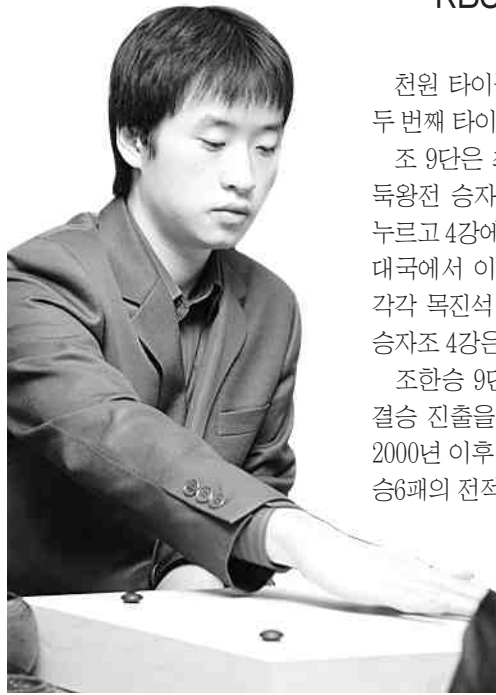
백 214수 끝, 백 불계승. 15-10, 66, 72-50, 69, 74-61, 188, 194, 200, 206-176, 191, 197, 203-185, 215-204.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천원' 조한승, 두번째 타이틀 보인다

KBS 바둑왕전 이영구 6단 누르고 승자조 4강 진출



천원 타이틀 보유자인 조한승 9단이 두 번째 타이틀 획득을 노리고 있다. 조 9단은 최근 열린 제26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8강에서 이영구 6단을 누르고 4강에 올랐다.

조한승 9단은 최철한 9단과 승자조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조 9단은 2000년 이후 최철한 9단과 11번 만나 5승6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최근(2006년 이후)에는 최철한 9단이 2연승을 거두고 있다.

랭킹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세돌 9단과

이창호 9단의 4강 대국 또한 빅카드이다. 두 기사는 2006년 KBS바둑왕전 패자결승 이후 공식 대국이 없었다.

한편 패자조에서는 윤성현 9단이 루이 나이웨이 9단과 패자조 2회전 대결을 예약했다.

KBS바둑왕전은 제한시간 5분, 30초 초읽기 5회의 속기전으로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600만원)이다.

대방노블랜드 "홈에서 기필코 첫승을"

한국바둑리그 순천투어

17일 총복 제일화재와 격돌

한국바둑리그 투어경기가 17일 순천시에서 열린다.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에서는 홈팀 전남 대방노블랜드와 총복 제일화재가 격돌한다.

이번 대국의 관전 포인트는 대방노블랜드의 첫승 여부. 대방노블랜드는 현재 3패를 기록중이고, 원정팀 제일화재는 2승 1패를 유지하고 있다.

4라운드 첫 대국에서 대방노블랜드는 한상훈을, 제일화재는 지옥선배에서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조현을 내세운다. 대방 노블랜드의 주장 박영훈은 서건우와, 제일화재 주장 이세돌은 윤성현과 격돌한다.

순천대학교에서는 바둑팬 30여명(광양제철소 10명, 전남협회 10명, 현장접수 10명)을 초청해 프로그래머와 지도자만행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리틀바둑리그도 함께 열린다.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는 한국기원, 바둑TV에서 주최,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한다. 우승팀은 2억 5천만원, 준우승팀은 1억 5천만원의 상금을 받게되며 제한시간은 각각 1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대)383-5221
● 건물투자
● 분양
● 상가사임(상부지구)
● 모텔매매
● 공장·창고 및 기타

정우부동산
☎(대)675-4788
건물급매
토지매매
상업지역

첨단월세공인중개사
☎(대)72-4585
★ 급매매 ★
● 첨단 인근 비어둔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 대주택, 물류창고, 복식 실버시설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 9억 8천 빌딩
● 12억 9천 빌딩 급매

알파공인중개사
☎(대)974-0229
상업용 건물매매
● 매가: 80억 52억, 보36억
● 매가: 30억 99억, 보4억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 8천만원이다.
● 매가: 21억 66.5억, 보5억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 8천만원이다.
● 매가: 21억 66.5억, 보5억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 8천만원이다.
● 매가: 21억 66.5억, 보5억